

의인 原因이 있는 것이다. 즉 지난 工事에서는 元來 開放되어 있던 石窟의 前面部를 木造建物の 新築으로 차폐하여 놓았으며, 上部와 側面部에는 2층들을 만들고 그 위를 또다시 두꺼운 封土層으로 덮어 놓은 것이다. 말하자면, 이것은 14m 깊이에 있는 密閉된 地下室의 構造로 石窟을 改造한 것이니 이러한 構造 下에서는 石壁에서의 結露現象은 上記와 같이 극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면 과연 石窟의 올바른 名稱은 무엇이며 또 그렇게 불리울 수밖에 없었던 現由은 무엇이었을 까 등에 대하여 옛 記錄들을 살펴 보기로 하자.

III

751년에 創建된 石佛寺는 17世紀 後半頃에 이르러 佛國寺의 庵子가 되었으며 그 이름도 바뀌게 되었다. 그러나 僧房만으로 構成되어 있는 通常의 寺刹 庵子와는 달리 石佛寺에는 僧房 뿐 아니라 大雄殿에 該當하는 石佛殿이 그대로 있었던 것이므로 그 兩者를 모두 區別呼稱할 필요가 생겼으며 따라서 上記와 같이 石佛殿은 石窟이라 呼稱하고 그 곳의 壽光殿은 石窟庵이라 呼稱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하여 주는 자료로서는

i. 縣板題名인 「吐含山石窟重修上棟文」

ii. 山中日記 1688년 5월條의 『15日至石窟庵 庵僧明海迎入 座小時 上石窟…… 下宿庵 16日又上石窟 更見…』

iii. 佛國寺寺蹟 中の 『1703年 從悅重觀石窟庵又築窟前石階』

등을 例舉할 수 있다.

이와 같이 石窟과 石窟庵과의 區別은 分明하였던 것이다.

그러면 石佛寺 또는 石佛이라고 하는 元來의 名稱이 왜 保存되지 아니하고 石窟이라고 하는 색다른 名稱으로 바뀌게 되었을까에 대하여 우리는 여기서 잠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石佛殿의 名稱이 石窟이라고 바뀌게 된 이유는 한마디로 말해서 그의 前面이 開放된 構造였기 때문인 것이다. 만약에 그의 元來의 前面이 오늘날과 같은 庵子形의 構造였다면 그것을 다만 石窟이라고 부를 수는 없었을 것이며 石佛殿이라는 元來의 이름을 그대로 固守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禮記 月令篇의 昏旦中星記事 研究

外國語大 金 基 協

二十八宿는 上古에서 近世에 이르기까지 中國 文化圈에서 天文學의 座標系로 使用되어 온 制度이다. 二十八宿(或은 그 前身이) 中國文獻에 처음으로 나타나는 것은 書經堯典의 四中星記事로 알려져 있지만, 體系的인 形態를 갖추고 本格的으로 使用된 例는 禮記의 月令篇과 呂氏春秋에 비로소 보인다.

孟春之月	日在營室	昏參中	旦尾中
仲春之月	日在奎	昏弧中	旦建星中
季春之月	日在胃	昏七星中	旦牽牛中
孟夏之月	日在畢	昏翼中	旦婺女中
仲夏之月	日在東井	昏亢中	旦危中
季夏之月	日在柳	昏火中*	旦奎中
孟秋之月	日在翼	昏建星中*	旦畢中
仲秋之月	日在角	昏牽牛中	旦觜觿中
季秋之月	日在房	昏虛中	旦柳中
孟冬之月	日在尾	昏危中	旦七星中
仲冬之月	日在斗	昏東壁中	旦軫中
季冬之月	日在婺女	昏婁中	旦氐中

* 呂氏春秋에는 「昏心中」「昏斗中」으로 되어 있음.

明代 以前の 月令天文記事 研究는 述語의 考證에 局限되었으나 清代에 西洋에서 近代天文學의 知識이 전해짐에 따라 歲差運動(precession)의 逆算을 통해 觀測年代를 推定하는 作業이 시작되어 今世紀까지 계속되어 오고 있다.

이 作業을 包括적으로 整理한 것이 能田忠亮의 「禮記月令天文考」(1938, 「東洋天文學史論叢」 所収)이다. 이에 대해 橋本增吉는 「禮記月令의 曆法思想」(1944, 「東洋學報」 29)의 많은 部分에서 能田의 研究를 言及하고 몇가지 技術的인 問題(二十八宿 距星의 同定 및 觀測技術의 水準)를 指摘하였으며 飯島忠夫는 「禮記月令天文考を讀む」(1941, 「東洋學報」 27-1)에서 中國曆法の 起源을 包含하는 根本的인 問題에 대한 異見을 提示했다. 橋本와 飯島 兩人이 追求한 論旨는 서로 다른 方向이지만 그 過程에서 月令天文記事의 體系性(같은 時期에 一定한 方法에 의해 觀測되고 記錄된 資料의 集合이라는 命題)을 否認하는 立場을 같이 하였으며, 이 점이 能田(및 以前の 新城新藏,

以後의 藪内清)의 見解에 대한 批判의 焦點이 된다고 볼 수 있다.

能田의 研究를 檢討해 보면 概念上 및 方法上의 몇가지 誤謬가 있는 위에, 充分한 論據를 提示하지 않고 서둘러 資料의 體系性을 認定한 缺陷이 있다. 反面, 橋本와 飯島는 이 缺陷을 正確히 指摘하였지만, 그 缺陷이 致命的인 것임을 確認하기에는 未洽하며, 資料의 體系性을 否認할 수 있는 適當한 다른 說明도 提示하지 못했다.

이와 같은 狀況에서 本稿가 指向하는 바는, 일단 資料의 體系性을 前提로 하고 能田의 誤謬를 補完한 方法으로 資料를 處理한 다음, 그 結果를 分析的으로 檢討하는 것이다. 具體的인 展開는 一般的인 天文觀測의 構成要素 일곱가지를 逐次的으로 檢討하는 方法을 따르겠지만, 그中 觀測年代 觀測季節, 赤經, 觀測位置, 黃道傾斜角 등은 別般 複雜한 문제를 惹起하지 않으므로 觀測時刻라 誤差에 관한 문제가 本論에서 集中的으로 다루어 지겠다.

昏旦中星의 觀測時刻에 대한 基礎的인 理解를 얻기 위하여는 漢書 및 唐書의 律曆志에 보이는 晝夜漏刻과 黃道去極度 그리고 禮記의 孔疏에 보이는 三統曆, 元嘉曆의 昏旦角 등의 資料가 이용

되었다. 이들을 통해서 볼 때, 禮記 月令篇에 나타나는 昏旦中星記事는 各 季節에 있어서 天文觀測이 가능한 最大限의 밝기를 가지는 時刻에 있어서의 南中星을 記錄한 것이며, 日躔記事는 이 昏旦中星을 根據로 하여 算術的으로 導出된 것이라는 점, 또 이들 概念이 漢代 以後 支配的인 宇宙觀에 의해 觀念化·圖式化됨으로써 實質的인 意味를 喪失해 가는 過程이 드러난다.

日躔記事를 昏旦中星記事보다 基本的인 資料로 다룬 점, 誤差의 解釋을 一貫性있게 하지 못한 것이 能田의 重要的인 誤謬이다. 이러한 점을 補完하여 月令天文記事를 處理하면 總 36條 가운데 5-7個條를 除外한 記事가 常識的인 誤差의 範圍內에서 調和를 이룬다는 結論을 얻을 수 있다. 이를 根處로 하여 同資料의 體系性을 確言할 수 있는지 與否는 本稿의 論外이며, 다만 다른 方面에서의 考察과 綜合될 수 있는 어느程度의 蓋然性을 提示하는 것으로 滿足한다. 끝으로 덧붙일 것은 이러한 蓋然性을 積極的으로 認定하는 立場에서 推算한다면 月令記事의 觀測年代는 能田가 設定한 B.C. 7世紀末보다 200餘年 늦은 B.C. 4世紀初로 보는 것이 더욱 合當할 것으로 생각한다.